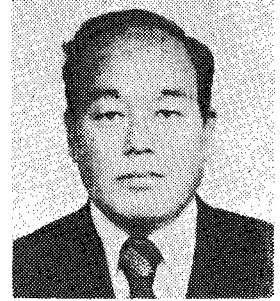


山地開發에 대한 視角의 定立

黃 垠

(江原大學校 農科大學 教授)



금년 3월 5日 政府가 發表한 農漁村綜合對策은 高度經濟成長의 그늘에서 相對的으로 活力이 식어가는 農漁村에 대한 所得增大 및 生活環境改善을 皮하려는 基本目標와 主要施策을 提示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下向式計劃을 地域單位의 住民需要나 要求度를 土臺로한 上向式 靑寫眞을 수렴하여 이에 따르는 計劃的인 開發·整備를 支援하려는 것으로 各種, 具體的인 施行方案인 多角度로 진지하게 研究·檢討되고 있음은 지극히 多幸하고도 마땅한 일이라 하겠다.

農山漁村에 대한 對策은 이제까지도 生産基盤을 主軸으로 하여 꾸준히, 多方面에 걸쳐 講究되어 왔고 한결같이 잘사는 農村을 만들어 보겠다는 意志나 支援策을 中斷한적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努力에도 불구하고 農山村의 現實은 離村, 離農이 激增하는 가운데 所得의 保障이 退色되어 가고 農家負債가 累增되어 가고 있다. 특히 人口過疎地域으로 轉落해가는 山村에서는 한줌의 農土에서 남아 生計를 維持해 오던 것이 이제는 그의 限界點에 達하고 있다.

이제까지 山地를 利用하고 開發하는 것은 食糧作物의 栽培를 위한 開田, 開畓과 部分的이 남아 果樹, 桑田, 草地 등이 그 主軸이었고 大部分의 경우 比較的, 條件이 좋은 곳을 選擇하여 點開發式 開墾을 위주로 해왔다. 또 그 開發方式도 最少投資에 의한 開發의 收益性이 保障되는 것이어야 했고 社會間接施設面에서는 거의 度外視된 開發이었다.

또 國土利用面에서 보더라도 農土(田, 畓)와 果樹地, 草地 등의 面積 2,355千ha 中 果樹地나 草地面積은 9.3%에 해당하는 219千ha에 불과하며, 이를 다시 傾斜別로 보면 前記 利用面積(2,355千ha)의 13%에 達하는 299千ha가 15%(8° 30') 以上の 傾斜地에 位置하고 있어 이의 保全 또는 利用面에서 적지 않는 制約이 加해지고 있다.

이러한 制約條件을 最大限으로 改善하고 山地의 効率的인 利用범주를 擴大하는 길을 摸索하고 對處方案을 어렵게 講究할 것인가에 關心을 모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보겠다.

가꾸지 않는 國土나 農土는 쉽게 損傷되게 마련이고 流失, 破損된 이들 資源의 回復에는 엄청난 費用과 勞力이 浪費된다. 國土는 分明히 오늘에 사는 우리들이 保全하고 가꾸어야 하며, 後代에 보다 나은 삶의 터전으로 물려주어야 資源인 동시에 一時的인 利用에 끝낼 수 없는 貴重한 資源인 것이다. 一時的으로 또는 短期間의 發想에 의한 山地開發이 功보다는 過로 浮刻되기도 한 지난날의 經驗에서 우리는 山地를 다루는 視角을 再定立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山地에 대한 土壤側面에서의 利用區分을 비롯하여 林野利用區分 및 用途指定 등이 오랜期間을 통해 調査, 整備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基本資料를 土臺로 하여 2000年代의 바람직한 山地開發의 構想이 다듬어져 가야 할 것이다.

이에 는 經濟, 社會與件의 變動에 따른 2000年代의 國家的인 開發意志가 確固히 담긴 山地開發 資源圖가 지금부터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土壤保全, 道路網이나 排水組織網 등 一聯의 基幹施設의 社會間接資本의 果敢한 投入 등을 포함하여 山村의 復興과 이들에 의한 國土管理機能의 強化라는 次元에서, 山地開發의 靑寫眞이 提示되어야 할 것이다.

쌀이 남아돌고, 소값이 暴落하고, 飼料穀物의 輸入은 不可避하며, 農畜產物의 輸入開放壓力이 加重될수록 우리는 山地資源에 대한 진지한 開發研究를 한층 積極的으로 展開해야 할 것이며, 比較優位性에서 하루빨리 脫皮하는 길자비가 될 것이라는 것을 強調하여 마지않는다.